

## 세계 밀 수급 동향과 전망 (2012. 3)

### 2011/12년도 세계 밀 생산량 증가 전망

2011/12년도 세계 밀 생산량은 지난달 전망치보다 110만 톤 증가한 6억 9,40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미국의 2011/12년도 총 공급량은 2월 전망치와 동일한 8,116만 톤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2010/11년도보다 808만 톤 낮은 수준이다. 생산량 감소로 겨울 소맥(HRW), 봄 소맥(HRS) 그리고 듀럼밀(durum) 공급은 작년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HRW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수확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HWR 파종면적은 2010년보다 조금 감소하였으나, 중부와 남부 평야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전년보다 수확을 포기하는 비율이 급등하고 수확량이 감소하였다. HRS와 듀럼밀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수확량 감소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북부 평야 지대의 과도한 강수량과 낮은 기온은 파종시기를 늦췄다. 2011년 HRW에 비해 HRS가 2010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몇몇 제분업에서 HRS를 HRW로 대체하였다. 또한 미국의 겨울 소맥(soft red winter)과 백밀 공급량은 생산량의 증가로 2010/11년보다 증가하였다. SRW는 재배면적과 수확이 크게 증가하여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가을 비로 인해 줄뿌림 작물(row-crop) 수확이 지연되고 낮은 가격으로 인해 SRW 파종이 감소하였던 2010년에 비해 2011년 작물 재배면적은 다시 회복되었다. 대부분 계절의 기상 상황이 좋아 SRW 재배지역의 생산이 2010년보다 100% 이상 증가하는 등 생산량은 전년보다 상당히 증가하였다. 백밀은 재배면적과 수확량이 모두 증가하여 생산량도 증가하였다.

2011년 미국의 밀 생산량은 2월과 동일한 5,440만 톤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10년보다 762만 톤 낮은 수준이다. 밀의 총 재배면적은 4,570만 에이커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12월과 동일하고 전년대비 190만 에이커 감소한 수준이다. 미국의 2011년 총 밀 수확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3월 발간한 전망 보고서(Wheat Outlook)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우림 연구원(urimcho@krei.re.kr)이 작성함.

량은 에이커 당 1.19톤으로 12월과 동일하나 역대 최고 수준인 2010년의 1.26톤보다는 0.07톤 감소한 수준이다.

호주의 2011/12년도 생산량은 지난달 전망치보다 120만 톤 증가하고 전년대비 160만 톤 증가한 2,95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호주의 수확은 거의 완료된 상황이며, 지난달 전망치보다 증가한 것은 호주 농림부에 속한 연구원인 농업자원경제과학청 (ABARES)의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서호주의 밀 단수와 생산량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호주 전체 단수와 생산량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가뭄의 피해를 입었던 지난해에 비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2011/12년도 밀 생산량은 두 배 이상인 135% 가량 증가하였고, 이는 5년 평균치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동부 지역도 (뉴사우스웨일스주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매우 높은 단수를 기록하였으나, 수확기의 폭우로 인해 밀 품질은 저하되었다.

몽골의 밀 생산량은 지난달 전망치보다 20만 톤 증가한 40만 톤으로 전망되었으나, 방글라데시와 키르기스스탄은 각각 지난달 전망치보다 10만 톤씩 감소한 110만 톤, 8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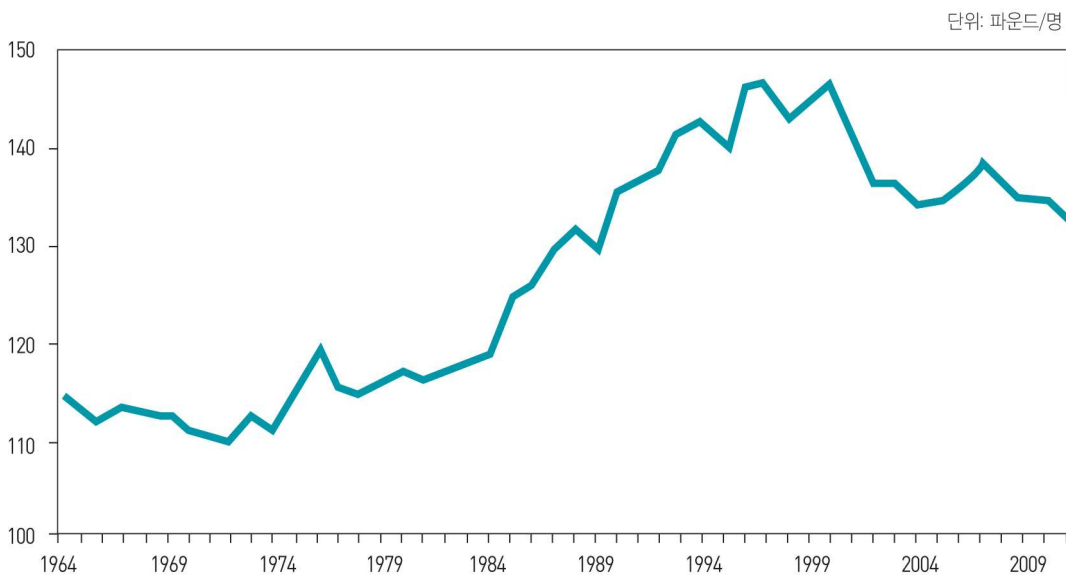
2011/12년도의 낮은 세계 기초재고량이 이번 달 생산량 증가분을 상쇄시켰다. 중국이 2010/11년도 식량, 종자, 산업용(FSI)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2011/12년도 밀 기초재고량이 100만 톤 감소하였고 세계 기초재고량은 지난달 전망치보다 12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방글라데시의 기초재고량도 지난달 전망치보다 20만 톤 감소하였으며 아제르바이잔과 키르기스스탄은 각각 10만 톤씩 감소하였다. 반면 파라과이의 기초재고량은 전월 전망치보다 25만 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0/11년도 밀 생산량이 조정되면서 기초재고량도 바뀌었다. 한국의 기초재고량도 조금 변화하였다.

## 2011/12년도 세계 밀 소비량은 중국 소비로 인해 증가 전망

2011/12년도 세계 소비량은 지난달 전망치보다 350만 톤 증가한 6억 8,39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중국의 FSI 소비가 지난달 전망치보다 250만 톤 증가한 9,850만 톤으로 전망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전분 및 에탄올 생산자들은 현재 밀 대비 옥수수 가격에서 밀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옥수수 대신 밀을 대체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봄 이후, 중국의 옥수수 가격은 밀 가격을 넘어섰는데 이는 다른 대부분 국가와는 반대 현상이다. FSI 소비가 증가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중국의 고단백(12% 이상) 밀과 저품질 원료들을 혼합한 서양식품과 빵제품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알제리, 칠레, 알제르바이젠의 밀 FSI 소비도 소폭 증가하였다.

2011/12년도 미국 소비는 식용 소비의 감소로 2월보다 14만 톤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로는 79만 톤 증가한 427만 톤으로 추정되었다. 2011/12년도 식용 밀 소비는 최근 북미제분협회(North American Millers' Association)가 발표한 밀가루 생산 보고를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 2월보다 14만 톤 감소한 2,531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2011년 미국의 1인당 총 밀가루 소비량은 60.1kg으로 추정되었다. 1인당 밀가루 소비량은 2010년 추정치보다 1.0kg 감소하였고 소비가 크게 증가했던 2007년보다는 2.6kg 감소한 수준이다. 1인당 밀가루 소비량은 58.9kg 이었던 1989년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낮은 수준이었던 적이 없었다. 2011년 1인당 식용 소비량은 소비자들이 저탄수화물 식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밀가루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2000년에 비해 6.3kg 감소하였다. 2011/12년도 식용 밀 소비량은 2010/11년보다 11만 톤 증가하고 종자용 밀 소비량은 2월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료용과 기타 소비도 2월 전망치와 동일한 395만 톤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2010/11년보다 35만 톤 높은 수준이다.

그림 1. 1964~2011년 미국의 밀가루 소비량



자료: USDA, Wheat Outlook, WHS-12c, March 13, 2012

호주는 밀 공급이 증가하면서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호주의 사료용 밀 소비는 지난달 전망치보다 50만 톤 증가한 450만 톤으로 예상되었고, 총 밀 소비는 770만 톤으로 예상되었다. 이란의 사료용 밀 소비도 지난달 전망치보다 50만 톤 상향 조정된

10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이란의 가금육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다른 사료의 양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란은 많은 국가들로부터 다양한 품질의 밀을 수입함과 동시에 더 많은 양의 국내 밀을 사료용으로 소비할 것으로 보인다(교역 부문 참조). 한국과 필리핀의 사료 소비도 소폭 증가하였다. 한국의 사료용 밀 소비는 지난달 전망치보다 20만 톤 증가한 250만 톤으로 전망되었고, 필리핀은 10만 톤 증가한 10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축산 부문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EU-27과 미국의 밀 소비 감소로 위에서 언급한 밀 소비 증가가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EU 27개국의 경우 사료와 산업용 밀 소비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밀 대신 옥수수 사료를 소비하면서 사료용 밀 소비는 지난달 전망치보다 100만 톤 하향 조정되었고, 산업용 밀 소비는 에탄올 생산이 지난번 전망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50만 톤 하향 조정 되었다. 몇몇 세계 소비량 전망치 감소는 국내 지역별 마케팅연도 교역량 변화분 때문이다.

### 2011/12년도 세계 밀 교역량 역대 최대량 근접 전망

2011/12년도 세계 밀 교역량은 지난달 전망치보다 300만 톤 증가한 1억 4,180만 톤으로 전망되었으며, 이는 최대 교역량을 기록한 2008/09년도보다 110만 톤 모자란 수준이다. 기록적인 세계 생산량과 재고량으로 인해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사료용으로 소비되는 저품질 밀 교역량도 증가하였다.

미국의 2011/12년도 총 밀 수입량은 2월과 동일하나 HRS와 듀럼 밀의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로는 63만 톤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되었다. HRS와 듀럼 밀 수입량은 미국 내 공급 부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의 2011/12년도 총 물량은 2월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1/12년도 HRS와 SRW물량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른 품종의 물량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2011/12년도 미국의 밀 수출량은 사료용 밀 가격이 다른 곡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2월 전망치보다 68만 톤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요 수출국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미국 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2010/11년도보다는 787만 톤 감소한 2,722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3월 품종별 수출 변화를 살펴보면, HRS와 백밀은 27만 톤 증가하였고, 듀럼은 14만 톤 증가하였으며, HRW와 SRW는 전월과 동일하였다. 품종별 변화는 최근의 거래와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산출하였다.

이란의 2011/12년도 밀 수입량은 지난달 전망치보다 180만 톤 증가한 2백만 톤으로 전

망되었다.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란은 계약 해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국가로 부터 밀을 구입하였다. 핵 문제로 인한 금융 제재로 수입대금을 지불하는 데에 제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초기에 이란으로 전달되기로 한 화물의 일부가 이라크, 예멘, 수단, 이집트 등으로 수출되었다. 이란은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 등과 서양의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해 루블 혹은 루피로 작성한 계약서로 곡물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호주, EU-27, 미국, 브라질도 이란에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달에는 많은 국가의 밀 교역량 전망치가 바뀌었는데 이는 현재 시점의 출하량 속도에 기초하여 기존의 전망치를 업데이트할 교역 자료와 정보가 많이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2011/12년도 한국의 수입량 전망치는 사료용 밀 수요 증가로 인해 기존 전망치보다 30만 톤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입량인 5백만 톤을 기록하였다(백밀의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수입). 알제리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밀을 구입하면서 2011/12년도 수입량이 기존 전망치보다 30만 톤 증가한 64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구소련 지역인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도 카자흐스탄으로 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 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칠레, 앙골라, 에리트레아, 가나, 뉴질랜드, 우크라이나의 수입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시리아와 몽골의 밀 수입이 감소하여 증가폭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2011/12년도 수출 전망치가 가장 크게 변한 곳은 호주, 브라질, 카자흐스탄이다. 호주는 수출 가능한 물량이 많고 수출 속도가 빨라 수출량이 기존 전망치보다 50만 톤 증가한 2,10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브라질도 보조금 제도를 통한 경매 속도가 빠르고 대이란 수출을 진행할 것으로 발표하면서 수출량은 기존 전망치보다 50만 톤 증가한 15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카자흐스탄은 국가 차원에서 매달 120만 톤 가량의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 곡물을 항구까지 이동시킬 때 드는 운임 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철도 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밀 수출량이 기존 전망치보다 50만 톤 증가한 90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교역 자료를 반영한 터키와 세르비아의 수출량은 각각 30만 톤, 20만 톤씩 증가하였다.

밀 판매와 수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제 7/6월 무역 연도 기준 미국의 수출량은 기존 전망치보다 100만 톤 증가한 2,65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6/5월 국내 마케팅 연도 기준 미국의 수출량은 68만 톤 증가한 2,722톤으로 전망되었다. 미국은 아시아(한국, 필리핀, 중국)와 멕시코에 경질 소맥(hard wheat)과 사료용 밀을 추가 판매할 계획이다.

## 2011/12년도 세계 밀 기말재고량 감소 전망

밀 공급은 큰 변화가 없으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밀 기말재고량은 지난달 전망치보다 350만 톤 감소한 2억 960만 톤으로 하향조정 되었다.

기말재고량이 가장 크게 감소한 나라는 중국으로 밀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말재고량은 350만 톤 감소한 6,15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그 외 밀 기말재고량 전망치가 바뀐 곳은 모두 감소분과 증가분이 동일하여 전체 합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말재고량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50만 톤 감소한 2,250만 톤으로 전망되었다. 모든 밀의 기말재고량은 2010/11년 대비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듀럼, HRS, HRW의 기말재고량은 2010/11년 대비 각각 48%, 24%,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SRW와 백밀의 기말재고량은 2010/11년 대비 각각 42%,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출 증가 전망으로 인해 브라질과 카자흐스탄의 재고량도 50만 톤씩 감소될 전망이며, 터키는 30만 톤, 세르비아는 20만 톤 감소될 전망이다. 시리아는 수입 감소 전망으로 재고량이 20만 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방글라데시와 키르기스스탄도 기초재고량과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고량이 각각 30만 톤, 20만 톤씩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EU-27은 국내 밀 소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재고량이 15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란은 사료용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입량으로 재고량이 30만 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알제리, 한국도 높은 수입으로 인해 재고량이 각각 30만 톤, 20만 톤, 10만 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호주도 수출량과 밀 소비량이 증가하였지만 생산량이 더 크게 증가하여 재고량은 20만 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파라과이는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기초 재고량이 증가하여 20만 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조지아와 뉴질랜드의 기말재고량은 각각 10만 톤 미만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표 1. 주요국의 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추정)	2011/12(전망)		변동률(%)		
			2012.2	2012.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세계	685.59	651.51	692.88	694.02	0.1	0.0
	미국	60.37	60.06	54.41	54.41	-0.1	0.0
	아르헨티나	12	16.1	14.5	14.5	-0.1	0.0
	호주	21.83	27.89	28.3	29.5	0.1	0.0
	캐나다	26.85	23.17	25.26	25.26	0.1	0.0
	EU-27	138.82	135.67	137.49	137.49	0.0	0.0
	브라질	5.03	5.9	5.8	5.8	0.0	0.0
	중국	115.12	115.18	117.92	117.92	0.0	0.0
	파키스탄	24	23.9	24	24	0.0	0.0
	인도	80.68	80.8	86.87	86.87	0.1	0.0
	러시아	61.77	41.51	56.23	56.23	0.4	0.0
	카자흐스탄	17.05	9.64	22.73	22.73	1.4	0.0
	우크라이나	20.87	16.84	22	22	0.3	0.0
수입량	세계	133.58	130.07	135.91	138.01	0.1	0.0
	미국	3.23	2.64	3.27	3.27	0.2	0.0
	아르헨티나	0	0.01	0.01	0.01	0.0	0.0
	호주	0.12	0.12	0.1	0.1	-0.2	0.0
	캐나다	0.4	0.43	0.4	0.4	-0.1	0.0
	EU-27	5.52	4.71	7.5	7.5	0.6	0.0
	브라질	7.13	6.67	7	7	0.0	0.0
	중국	1.39	0.93	1.5	1.5	0.6	0.0
	파키스탄	0.17	0.15	0.2	0.2	0.3	0.0
	인도	0.22	0.27	0.03	0.03	-0.9	0.0
	러시아	0.16	0.09	0.2	0.2	1.2	0.0
	카자흐스탄	0.06	0.01	0.03	0.03	2.0	0.0
	우크라이나	0.03	0.04	0.05	0.1	1.5	1.0
소비량	세계	650.31	654.36	680.48	683.93	0.0	0.0
	미국	30.98	30.71	31.61	31.48	0.0	0.0
	아르헨티나	5.83	5.88	5.93	5.93	0.0	0.0
	호주	4.93	6.13	7.23	7.73	0.3	0.1

구 분	2009/10	2010/11 (추정)	2011/12(전망)		변동률(%)		
			2012.2	2012.3	전년대비	전월대비	
	캐나다	6.93	7.67	9	9	0.2	0.0
	EU-27	125	122	127	125.5	0.0	0.0
	브라질	11	10.8	11.2	11.2	0.0	0.0
	중국	107	110.5	113.5	116	0.0	0.0
	파키스탄	23	23.2	23.4	23.4	0.0	0.0
	인도	78.15	81.76	83.06	83.06	0.0	0.0
	러시아	39.6	38.6	38.6	38.6	0.0	0.0
	카자흐스탄	7.6	6.2	9	9	0.5	0.0
	우크라이나	12.3	11.6	13.39	13.44	0.2	0.0
	수출량	세계	135.8	131.82	140.25	142.93	0.1
미국		23.93	35.08	26.54	27.22	-0.2	0.0
아르헨티나		5.1	9.49	9	9	-0.1	0.0
호주		14.83	18.66	21	21.5	0.2	0.0
캐나다		19.04	16.58	17.5	17.5	0.1	0.0
EU-27		22.12	22.85	17	17	-0.3	0.0
브라질		1.16	2.5	1	1.5	-0.4	0.5
중국		0.89	0.94	1	1	0.1	0.0
파키스탄		0.3	1.1	0.8	0.8	-0.3	0.0
인도		0.06	0.07	0.7	0.7	9.0	0.0
러시아		18.56	3.98	20.5	20.5	4.2	0.0
카자흐스탄		7.87	5.52	8.5	9	0.6	0.1
우크라이나	9.34	4.3	6	6	0.4	0.0	
기말재고량	세계	202.33	199.49	213.1	209.58	0.1	0.0
	미국	26.55	23.47	23	22.45	0.0	0.0
	아르헨티나	2.36	3.1	2.68	2.68	-0.1	0.0
	호주	5.59	8.82	9	9.2	0.0	0.0
	캐나다	7.83	7.18	6.34	6.34	-0.1	0.0
	EU-27	16.16	11.69	12.68	14.18	0.2	0.1
	브라질	1.52	0.78	1.38	0.88	0.1	-0.4
	중국	54.43	59.09	65.01	61.51	0.0	-0.1
	파키스탄	3.56	3.31	3.31	3.31	0.0	0.0
	인도	16.12	15.36	18.5	18.5	0.2	0.0
	러시아	14.52	13.54	10.87	10.87	-0.2	0.0
	카자흐스탄	5	2.93	8.18	7.68	1.6	-0.1
우크라이나	2.36	3.34	6	6	0.8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504, March 9, 2012